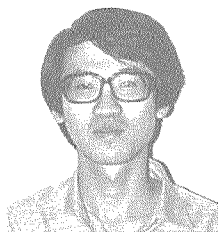


# 올바른 예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열대풍토병 감염의 예방에 대하여



용 태 순

오늘날 세계는 교통 수단의 발달 및 교역의 증가 등으로 지구촌(地球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좁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입국의 위치 아래 빠른 경제 발전을 추구한 결과, 짧은 시간내에 인적, 물적 국제 교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근자에는 해외로 관광을 나가는 사람의 수도 매우 많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반하여 주로 열대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전염성 질환에 이환되는 예가 근래 비교적 자주 우리 의료계에 의하여 검출, 보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 취업 근로자 및 모든 국의 여행자들이 그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거의 모든 열대병, 특히 기생충 감염에 대하여는 이를 막아줄 수 있는 예방주사가 없는 형편이므로 각 질병의 감염 경로를 숙지하여 주의를 기울여 하지 않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열대병의 예방 방법이다.

해외로 나간다고 할 때 우선 주의해야 할 질병은 말라리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과거에 유행하였던, 3일열(三日熱) 말라리아가 소멸되었으나,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100여개국에서 아직 만연되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보건 문제로 되어 있다. 말라리아의 유행 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밤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을 입고 외출하도록 하며, 기피제 등을 사용하면 감염의 위험성은 많

아직까지 거의 모든 열대병의 감염에  
대하여는 이를 막아줄 수 있는 예방 주사가  
없는 형편이므로 각 질병의  
감염 경로를 숙지하여 주의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 줄어든다.

또한 밤에 잘 때 모기장을 치거나 모기약(분무제)을 사용하여 실내 모기를 모두 죽여 모기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말라리아의 유행 지역에 들어가려면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들어가기 1주일부터 시작해서 유행지역을 벗어난 후 4~6주간 복용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매주마다 「클로로퀸」 1정(500mg)씩을 복용하는데, 「클로로퀸」 저항성을 나타내는 말라리아의 유행지에서는 단기간 「환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말라리아 이외의 원충성 질환으로 아프리카 수면병, 사카스병, 리슈마니아증 등이 각각 체체파리, 프리아토마 빈대, 모래파리 등에 의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에서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반드시 매개 곤충들에 의하여 감염되므로, 각 유행지역에 들어가는서는 이러한 매개 곤충들에게 흡혈을 당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충망, 기피제 등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될 수 있기는 하나 이질아메바, 람블편모충, 톡소플라스마 등의 감염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오염된 음식을 통하여 주로 감염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날로 먹는 음식(채소)이나 물, 또한 덜 익힌 고기 등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질아메바나 람블편모충에 의하여는 설사나 복통이 야기될 수 있고, 톡소플라스마 증은 임파선염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상충이라는 모기가 매개하는 기생충의 유행지역도 대단히 많은데, 이 유행지역에서는 말라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주혈 흡충이라는 기생충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기생충은 그 유충이 수생(水生) 패류(貝類)에서 나와 강가에서 목욕이나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관에 기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만연

지역에서는 절대로 강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동에서 근무하던 우리나라 근로자 중 강가에서 목욕한 후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여러 흡충(디스토마)류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간흡충 감염자 만도 백만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민물고기 및 반담수어의 생식(生食)에 의한 여러 흡충류의 소화기 감염은 주로 우리나라 및 극동에서의 중요한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근래에는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장내 기생 흡충류의 감염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들어와 진단, 치료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민물고기의 생식(生食)도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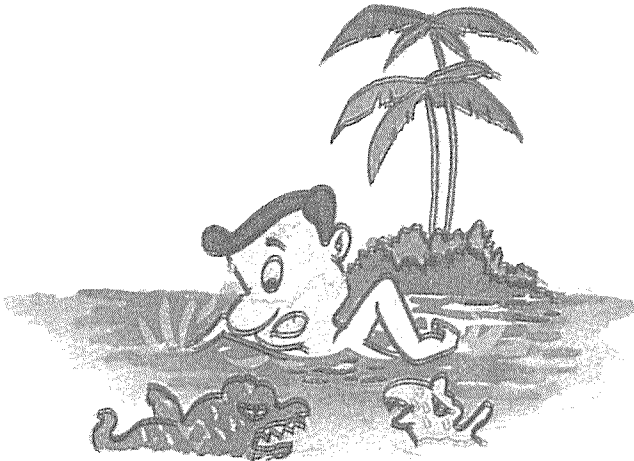
를 요한다. 한편 아프리카산(産)의 거대달팽이를 날로 먹었다가 수막뇌염을 일으킨 예도 있었는데, 이는 광동주혈선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달팽이 종류의 생식도 위험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고가 되지만 외국에서 특별한 음식이라고 권유되어 날로 먹게되는 것중에는 뱀, 개구리의 살이나 혹은 피가 있다. 이는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의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장기의 조직을 뚫고 다니며, 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기생충의 한 종류로 뱀, 개구리의 생식을 하지 않아야 예방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열대풍토병 외에 실지로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흔히 감염될 수 있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환

---

중동에서 근무하던 우리나라 근로자 중, 강가에서 목욕한 후 주혈흡충에 감염된 적이 있었다.





스파르가눔은 여러 장기의 조직을 뚫고 다니며, 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의 하나로 뱀, 개구리의 생식을 하지말아야 한다.

들이 또한 매우 많이 있다.

이중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을 위시한 바이러스성 감염은 해외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콜레라」를 비롯한 여러 세균성 질환은 흔히 오래된 음식물에 기인함으로써, 먹는 물이나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근래에 문제시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매독, 임질 등의 성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감염성 질환이다. 한편 덩기열이나 황열 등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도 중남미, 아프리카, 열대아시아 등에 유행지역이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예방주사를 맞도록 해야 한다.

상술한 바를 요약하여 열대풍토병 감염의 예방책을 기술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예방약이 있는 경우(예 : 말라리아)에는 이를 원칙에 따라 먹도록 하고, 예방주사가 가능한 질병(예 : 황열)은 이를 반드시 출국 전에 맞도록 한다.
2. 오염된 물, 음식을 주의하고 특히 날로 먹는 경우 등이 없도록 한다.
3. 매개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혈흡충의 만연지역에서는 함부로 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

열대의학 연구소